

南北對話再開의 背景과 現況

高 性 俊*

目	次
I. 머 리 말	IV. 85 年의 南北對話의 展開
II. 南北對話再開의 國內外的 背景	1. 南北赤十字會談
1. 國際環境的 要因	2. 南北經濟會談
2. 韓國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3. 南北國會豫備接觸
III. 北韓의 對話再開의 背景	4. 南北體育會談
1. 金正日의 리더쉽 확립	V. 南北對話의 評價 및 展望
2. 經濟難 타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	
3. 和·戰 併行의 적극戰略의 일환	

I. 머 리 말

지난해 여름 북한측의 수해물자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서 실로 중단 12년 만에 재개된 남북대화는 70년대에 있었던 남북 대화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적십자회담과 조절위원회의 두가지 종류밖에 없었던 70년대와는 달리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는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

* 師範大學 國民倫理教育科 助教授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IOC가 참여한 체육회담 등으로 다양하게 대화채널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서울에서 두번, 평양에서 한번의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교환 등이 이루어지면서 남북한 간에 지난 70년대 보다도 더 많은 수의 인적왕래가 있었다. 그리고 근차에는 남북한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자주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러한 남북대화의 양상과 관련시켜 볼때 최근의 남북관계는 지난 70년대와는 다르며 그 전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풍겨주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가 남북한관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리라는 기대는 성급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년간의 남북대화를 통해서 볼 때 다양하게 회담은 계속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이는 북한측이 대화는 하되 실질적인 진전은 원치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서 연유하고 있다. 북한측의 기본노선을 변경하지 않는한 우리의 노력이나 주변정세의 변화만으로는 남북한관계의 본질적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 평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남북대화는 어떠한 국내외적 요인들이 배경이 되고있나와 북한측이 실질적인 진전은 원치않으면서도 회담을 지속하고 있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를 회담별로 평가·전망해 보고자 한다.

1) 북한의 「국가부주석」인 朴成哲은 85년 10월 18일 유엔 40주년 기념총회 연설에서 현재 진행중인 남북회담들이 성공적으로 진전되면 그 결과에 따라 남북 고위정치회담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985년 10월 19일

대한민국의 盧信永 국무총리는 10월 21일 하오(한국시간 22일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쑸샤오둥 대통령이 지난 81년에 제의한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은 바로 그 같은 우리의 강력한 意志를 나타낸 것으로서 韓國政府는 이 會談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985년 10월 23일

또한 홍콩에서 발행되는 「Far Eastern Economic Review」誌도 최근호(1985년 12월 5일자) Diplomacy “Towards the Summit”란에서 이러한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II. 남북대화 재개의 國內外的 背景

지난 70년대의 남북대화 경험을 회고해 보면 국제환경과 우리의 이니셔티브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0·60년대의 冷戰體制下的 국제환경 속에서는 남북한 간의 어떠한 접촉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1970年代초의 미·중공 화해에서 시작되는 데탕트·무드의 국제환경과 우리의 대화의 촉구에 북한은 응하여 70년대의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²⁾

이러한 지난날의 경험을 감안해 볼 때 새롭게 전개되는 지금의 남북대화도 이러한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작금의 新冷戰의 환경을 탈피하여 새롭게 4강관계의 안정을 모색하고자 하는 국제환경적 배경과 우리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대화의 촉구에 기인한다.

1. 國際環境的 要因

1980년에 와서 중공은 종래의 反蘇 및 反霸權外交를 지양하고 미소간에 자주외교를 표방하기 시작했고 일본도 서방진영에 동조하면서 지역 및 세계적 인 역할을 모색하자 미·일·중·소 등 4강간에는 「4角外交」가 성행하게 되었다.³⁾ 이것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4강과 「교류접촉」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있다. 비록 북한이 그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 자신이 미·일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북한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

1980년대에 동북아에서는 4강이 상호간에 쌍무관계를 통하여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 결과 미·일, 미·중, 일·중 간에는 관계개선이 현저

2) 70년대에 있었던 남북대화에 있어 그 배경과 추진과정에 관한 글은 당시 대한민국측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鄭洪鎮(前南北調節委員會 幹事委員)씨의 “南北對話體驗記”(『政經文化』1981년 7월호)와 趙德松(朝鮮日報 論說委員)씨와 對談 “한밤에 만난 金日成”(『月刊朝鮮』1984년 7월호)이 있다. 남북대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시각은 당시 한국일보 주미특파원으로 있던 趙世衡씨의 “某種 중대 발표가 있다”(『政經文化』1984년 8월호)가 있다.

3) 安秉俊. “국제환경의 변화와 통일문제”, 季刊京郷 『思想과 政策』 vol.2, No.4. 1985.P.11.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소관계도 무역, 문화 및 경제교류 면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소관계는 여전히 북방도서문제로 긴장되고 있으나 이것도 다소 호전될 징후가 있다.⁴⁾ 미·소관계도 그동안 데탕트를 향해 접촉이 다차원적으로 있어 왔다. 그래서 이미 군축회담이 진행중이고 지난 11월에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같이 강대국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남북한간에 대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가. 미·중공관계의 밀착

두 나라간의 협력관계의 강화는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더 말할 나위없고, 중공 역시 4개 현대화로선의 추진을 위해서는 주변환경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⁵⁾ 실용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므로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응하게끔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과 중공은 83년 7월 31일 섬유무역의 협정을 체결하였고,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對戰車도우 미사일의 對中共 고급기술 제공 및 전략적 군사유대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84년 초에 접어들면서 레이건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였다. 따라서 7월 27일 미국과 중공은 연쇄수뇌회담을 갖고 소련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고 상호이익을 위해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제거하며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⁶⁾

4) Ibid.

5) 80년대에 전개되고 있는 중공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張達重, “中共의 外交政策 變化: 이데올로기와 이익의 갈등”, 「韓國과 國際政治」,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1권 2호, 1985 참조. 張교수는 이 논문에서 中共이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평화적 국제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며, 北韓을 소련의 세력권으로 밀어넣게 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정부의 실체를 인정하는 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6) 「讀賣新聞」 1984년 4월 28일.

南北對話再開의 背景과 現況

또한 중공은 脫마르크스教條主義的인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7) 북한이 처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중공식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응하게 되는 압력이 되고 있음을 부인 못할 사실인 것 같다.

나. 미·소의 새로운 데탕트 모색

미국과 소련은 지난 83년 이후 신냉전 질서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소련은 브레즈네프사망 이후 안드로포프의 등장과 함께 경제난 타결을 위해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데탕트를 원해왔으며, 미국 역시 레이건대통령이 재선되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소련과의 화해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미 그동안 제네바에서 미소간에 군축회담은 진행되었고 관계 개선의 구체적 조짐으로 지난 11월 6년만에 미·소간의 정상회담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이 발표한 13개항의 공동성명을 보면 미·소관계는 실로 해빙기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한다. 양국은 '핵전쟁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협력하고, '군사우위를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회담에 수행했던 두나라 외상회담에서는 지역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고 알려지고 있다.⁸⁾

이러한 미·소의 해빙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년에 들어서 만도 소련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군사지원을 제공하였다. MIG-23이나 스커드 미사일 등은 전략적 무기로서 북한을 고무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네바에서 개최한 미·소 정상회담이 지역분쟁의 해소와 억제의 필요성을 공동인식했다는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7) 1984년 12월 7일자 「人民日報」는 「理論與實際」라는 評論을 실고 19세기의 마르크스가 現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발표했던 것이다.

8) 「Newsweek」, 85년 12월 2일.

9) 북한과 소련간에 군사적 협력이 강화된 예로 ① 소련전폭기(배어)의 북한 내 북획단 비행(1984년 12월이후 6회), ② MIG-23 26대제공 ③ 공군비행단 교환방문(85년 5월) ④ 소련함정 3척 원산방문(85년 8월) ⑤ 신형 대잠폭격기(TU-95)의 한·일근해 작전항로 개설 등을 들 수 있다.

다. 중·소간의 제한된 화해추구

중공과 소련이 서로 팽팽한 적대관계를 지속하거나, 또는 전면화해를 실현할 경우 남북한 관계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공과 소련은 제한된 화해를 지향해 오고 있다.¹⁰⁾

금년 초 소련 제 1부수상 아르히포프는 북경방문을 통하여 양국간의 경제협력협정에 조인함으로써 1990년까지 양국간에 60억달러의 교역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더군다나 중·소양국은 지난 6월 10일 무역 및 산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20여년간 냉각되어온 양국관계 개선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양국이 가까운 장래에 30년전의 긴밀한 관계로 되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중공과 소련이 적대적 대립도 아니고 반대로 전면적 화해도 아닌 상태로 되는 것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지탱할 수 있는 보다 균형있는 4강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2. 韓國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우리의 통일정책의 기본입장은 현재의 남북한 체제의 인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현재의 상호불신상태를 해소해 남북한 간의 신뢰조성의 기반을 구축한 이후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정책의 기본틀은 지난 '82년 1월에 발표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으로 고착되어 있다.¹¹⁾ 이에 입각하여 남북한 간의 실질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기본적이기에 이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노력을 그동안 꾸준히 전개해 왔다. 이는 그동안 다져진 우리의 역량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체제우위를 확신하면서 북한수용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난해 9월 북한이 평화공세로 수해물자제공체의를 했을 때 선뜻 받아들이며서 끊어진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10) 金東成, “中共의 1980年代 外交戰略·戰術과 韓半島”, 「中蘇研究」3권 3호, 1984. pp 33~35.

11) 李洪九,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歷史的·理念的 照明”, 國土統一院編, 「民族和合 民主統一論」Ⅲ, 1985. pp 11~38.

李교수는 이 논문에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한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요소의 어떠한 것도 희생할 수 없다는 前提에서는 더 이상 統一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의 포용성과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南北對話再開의 背景과 現況

브를 발휘하게 된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에서도 많은 경우 북한의 주장을 포용하는 우리의 입장으로 회담이 지속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Ⅲ. 北韓의 對話再開의 背景

남북대화의 재개에는 北韓의 內部사정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필요성과 그들 나름대로의 정세관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하겠다. 실로 과거 북한이 남북대화 에 응해온 배경을 되돌아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전술적 측면에서 得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번의 남북대화 에서 北韓이 얻고자하는 得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들일까?

그것들은 첫째, 金正日 권력세습의 정통성 확보와 지지기반의 확대를 노린 것이다. 둘째는 현재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의 일환으로서 서방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위함이며, 세번째는 그들의 南朝鮮 革命의 干潮期로써 간주되는 對南 정세판단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들은 80년 대를 和戰양면전술의 好機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1. 金正日의 리더쉽 확립

김일성이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운 것은 김일성 사후에도 「金日成主義」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정일로서는 김일성의 의도와는 달리 생각하고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김정일도 자신의 권력 기반강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상징조작과 권력의 정통성 강화를 위해 나름대로의 통치스타일을 모색해야 한다.¹²⁾ 김정일이 항일 혁명전통을 내세울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북한의 오늘이 있기까지 애를 써온 치적을 내세울 수 있는 테크노크라트도 아니다. 김정일은 결국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부득이 미래에 대한 「비전」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일이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할때

12) 이러한 견해는 李世基 前國土統一院長官이 지난 6월 15일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최 「南·北韓間의 民族和合을 위한 國際심포지움」에서 행한 特別講演에 담겨 있다. 內容全文은 國土統一院에서 나온 「統一問題」 제 19집에 실려 있음.

가장 호소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아닌 그동안 「남조선 혁명」 준비라는 미명하에 허리띠를 졸라맨 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정일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강화된 70년대말 부터 방직공업, 식품공업, 주택건설 등에 대한 정치적 배려와 독려를 강화해 왔다.¹³⁾ 이러한 경향은 북한의 내부적 수요의 절증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김정일시대에 대한 북한주민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려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속셈이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른 나라를 특히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 내지는 힘을 빌릴 수 밖에 없기에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금의 남북대화를 김정일의 업적으로 이끌어 내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북한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경우, 이것은 그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높임으로써 후계자로서의 권능 및 통치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게 될 것이다.

2. 經濟難 타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

북한은 그들의 경제건설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自力更生원칙’을 제시하고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를 우선적인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북한의 ‘自力更生원칙’이란 ‘자기 인민의 힘과 기술, 자기나라의 자원을 최대한로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며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自力更生을 위주로 하고 밖으로 부터의 지지성원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야 하며 자기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 수 있으며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¹⁴⁾

이 같은 ‘自力更生원칙’은 56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의 김일성 연설에서 최초로 공식화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북한 경제건설의 기본원칙으로써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自力更生원칙’의 계속적인 추진에 따른 북한의 경제는 국제무역에서 쌍방간의 거래로 인한 무역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자체 시장규모의 협소로 규모경제의 실현이 불가능케될 뿐만 아니

13) Ibid. P.8.

14) 金元奉, “북한의 經濟現實과 그 展望”, 「共産圈研究」, 1985년 12월호 PP 37~45. 참조.

南北對話再開의 背景과 現況

라 보다 높은 선진기술 접촉을 봉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낙후, 경제적 침체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특히 날로 격차가 커지고 있는 남북한 경제비교에서의 열세는 그들을 더욱 초조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그들은 더이상 「自力更生路線」에만 급급할 수는 없게되며 작년 초 부터 合營法을 비롯한 몇가지 경제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다.¹⁵⁾

1970년 8월 한국이 ‘선의의 체제경쟁’을 선언한 이후 75년에 이미 남북한의 GNP는 2백 8억달러 대 93억달러로 약 2대 1이었으나, 84년에는 8백 2억달러 대 1백 47억달러로 약 5.5대 1의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산업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수공업 중심의 경제토대에서 ‘人民經濟’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소련의 경우 처럼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다.¹⁶⁾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국력격차가 커지고 경제가 더욱 침체됨으로써 초조감을 느끼게 되었다. 東歐 공산국가의 자본·기술은 그 여력이나 수준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북한은 서방, 특

15) 「合營法」 이후 北韓은 지금까지 10여개에 달하는 外國會社 및 個人間的 合資經營을 시작했으며 그 가운데는 프랑스와 합자로 건설하는 40층짜리 「양각도 국제호텔」, 일본과 합자경영하는 「낙원백화점」, 홍콩과 합자경영하는 「합홍타이어공장」 등이 있다. 현재 교섭중인 것은 30여건으로 그중에는 프랑스와 합작생산하는 술과 음료수공장, 스웨덴과의 합작가구공장, 태국과의 합작캔공장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중에서 일본이 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서독 순으로 되어있다. 「內外通信」 第 460 號, 1985.11.8.

柳錫烈교수는 북한이 발표한 「合營法」은 경제적 회복을 위한 수단적 가치 이외에 金正日 후계체제의 보존(완전개방이 아닌 선택적 개방조치)과 對外 관계 개선의 목적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있다.

柳錫烈, “北韓의 政治情勢와 開放化政策”, 85년 11월 10일~12일에 걸쳐 西江大東亞 研究所가 國立政治大學 國際關係研究中心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 6차 韓中學術會議에서 발표한 主題論文, PP. 16~19.

16) 李泰旭, “北韓經濟政策의 轉換”, 一自立經濟로 부터 開放化로, 1985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西江大東亞研究所와 國立政治大學 國際關係研究中心이 공동 주최한 제 6차 韓中學術會議 「中共和北韓의 開放化」에서 발표한 주제논문. PP 18~19.

히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적극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¹⁷⁾ 그리하여 북한은 이들 국가들을 회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긴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냉각되온 남북 대화의 재개에 유연성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3. 和・戰併行的 적극戰略의 일환

북한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남한지역의 공산화(남반부 해방)라는 불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 수단(戰)과 정치적 수단(和)을 並用하여 변화하는 상황여건에 따라 때로는 戰에, 때로는 和에 더 강조점을 두면서 공산화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武力統一企圖期(1950~1953) → 새 戰略 準備期(1953~1961) → 3大革命力量・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期(1961~1970) → 和・戰併行期(1971~현재)로 특징지을 수 있다.¹⁸⁾

현재의 북한의 대남전략은 그 골격에서는 1970년대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和・戰併行的 戰略이라는 점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으나 전략전개에 있어 좀더 적극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최근의 주변정세변화와 한국의 국내정치 변화를 보건데 和・戰併行的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和・戰의 공세를 한꺼번에 펴서 기다려 왔던 「남반부 해방」을 단행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우선 북한은 지난 몇년간의 한국국내정세의 불안, 정부와 국민간의 괴리,

17) 金學俊, “最近 北韓의 國內政治와 對外關係: 그 現況과 展望”, 金俊燁・스칼라피노 共編, 「北韓의 오늘과 내일」, 增補版, 法文社. 1985, PP 450~451. 金교수는 이 논문에서 미국의 경제주간지 「Business Week」(1984년 7월 9일)의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이 서방세계에 대한 문호개방 없이는 한국과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에 北韓을 방문한 적이 있는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의 Parris H. Chang 교수도 「Newsweek」. 85년 7월 8일자에 기고한 “North Korea's Wind of change”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18) 李相禹, “民族統一의 課題”, 李洪九外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主主義」, 博英社. 1985. PP 173~186.

南北對話 再開의 背景과 現況

둔화된 경제성장, 젊은 세대들의 사회주의 동경경향 등을 과대하게 증폭해서 인식하므로써 한국정세를 대남모험을 위한 好機로 보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¹⁹⁾ 만일 북한이 戰이라는 결정적 행동을 하려면 미국의 개입을 방지하고 한국의 경계심을 늦추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개방정책을 내외에 선포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시도하고 한국과는 적십자회담, 경제회담을 계속하면서 국회회담 나아가서는 고위정치회담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평화공세 내지는 和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에 있었던 서울에서의 적십자회담 때 북측 대표들중에는 서구 내지는 미국에서 외교관 내지는 유학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세련된 용어를 구사하여 회담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역력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대북경계심을 해소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북한은 계속되는 정치불안, 세대간 갈등, 계층간 의식의 차이, 노사문제, 급진적인 일부 젊은세대의 경향 그리고 한미간의 알력, 86년의 아시안게임 전후한 들뜬 분위기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전반적인 정치공세를 가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정적 행동을 위한 전쟁능력을 계속 강화해 오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5~7일 速戰 및 配合戰略(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동시전개)이라는 무력남침전략을 세워놓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해 왔다.²⁰⁾ 북한은 중공과 북한의 밀착관계를 견제하고자 하는 소련에 접근하여 그동안 소련이 공급을 꺼려온 신무기의 지원을 얻어냈다. 미그 23기와 T 72 전차, 그리고 스카드(scud) 미사일 등이 소련으로 부터 지원받은 신무기의 종류들이다. 또 지난 해 말에는 우리가 쓰는 주력무기의 하나인 미국 휴즈社의 헬리콥터를 87대나 사들여 갔다. 그리고 이미 후방에 있던 부대들을 휴전선 바로 가까이 전진 배치시켰다. 북한의 군사력 전진배치에는 예컨대 1개 연대병력에 8억원꼴의 돈이드는데,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몇백억원에 해당되는 부대전진배치를 했으며 이는 단순히 우리에게 대한 위협용으로만 간주하기는 어렵다. 최

19) 李相禹교수는 「週刊朝鮮」 85년 3월 24일자에 기고한 주간論壇에서 현단계 北韓의 對南戰略의 특징을 「和戰併行的 적극전략」으로 보고 있다.

20) 崔榮교수는 北韓의 軍事戰略을 크게 總力戰戰略,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配合戰略, 大量奇襲先制攻擊戰略, 速戰速決 戰略으로 나누고 있다. 崔榮, “北韓의 軍事戰略과 作戰術”, 「北韓學報」, 제 8집. 1984. PP 267~275.

이데올로기 研究論叢

근에 영국 전략문제 연구소가 발표한 「군사력 균형 85~86」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1년 사이에 병력수를 다음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증강시켰다.²¹⁾

<표> 남북한 군사력 비교

		한 국	북 한
육 군	병역	52만명	75만명
	전차	1천2백대	3천4백25대
	장갑차	7백량	1천2백40량
	야포	3천문	4천6백50문
	지대지미사일	12기	54기
	지대공미사일	21기	미상
	헬기	765대	170 (공군소속)
해 군	병력	4만5천명 (해병대포함)	3만5천명
	구축함	11척	—
	프리트깃함	7척	7척
	코르벳함	7척	—
	고속공격정	11척	3백45척
	초계정	84척	32척
	잠수함	—	20척
	수송선	8척	—
	대잠초계기	22대 (S-2A·F)	—
	헬상륙주정	22대	—
		32척	1백20척
공 군	병력	3만3천명	5만3천명
	투기총수	4백51대	8백대
	신예기	2백60대 (F5A·B·E·F)	1백60대 (미그21)
		65대 (F4D·E)	20대 (SU7)
	수송기	34대	270대 (AN2 250대포함)
	수송기	2백16대	2백24대
	정찰기	10대	—

< IISS. Military Balance 85-86 >

이는 언제든지 행동을 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은 공산통일을 위한 강경책 (戰) 과 평화공세 (和) 를 동시에

21) 「제주신문」 85년 11월 1일

떠나가면 승산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²²⁾

IV. 85년의 南北對話의 展開

1984년 10월 북한의 수해물자 제공과 이를 남북대화로 유도한 한국의 능동적 대응에 의해 역사상 ‘교류있는 남북대화시대’를 등장시켰다. 북한은 한국의 종용에 못이겨서가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환경의 안정화 경향과 그들 나름의 사정 때문에 남북 대화에 응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깔고 시작된 대화이기에 우선 赤十字會談에서는 人的交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 對 예술공연단 및 이른바 무조건적인 “自由往來” 등 對南政治心理戰과 對南工作 與件 개척기도가 맞서왔으며, 經濟會談은 북한의 “副總理級會談” 개최 고집에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실물경제 교류노력 對 북한측의 경제협력 공동위 구성 및 實務會議로의 격하 등 交流·協力忌避下의 “合作” 모색이 두드러졌고, 스위스 로잔느에서 3者會談식으로 진행된 體育會談에 있어서도 북한측의 수락될 수 없는 요구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뒤늦게 시작된 國會豫備會談에서는 평화통일 촉진에 기여될 立法的 協議體구성 對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식 政治協商體 유도 책략이 부각되기 시작했다.²³⁾

1. 南北赤十字會談

지난 5월 27일과 28일, 서울에서 제 8차 본회담이 개최되었고 8월 27일과 28일에는 平壤에서 제 9차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이것은 지난 73년 7월 11일과 12일, 平壤에서 개최되었던 제 7차 본회담에 이어 12년 만에 다시 열린 회담인 것이다. 제 10차 본회담은 11월 26일과 27일에 개최될 예

22) 李洪九·安秉永, “統一에의 門은 열리는가”, 『經濟文化』, 1985년 11월호. PP 84~101. 두교수는 對談기사에서 최근의 남북대화를 和戰병행전략과 관련하여 그 배경과 의미를 밝히고 있다.

23) 金瑞, “南北對話再開 1주년에 즈음하여”, 『共產圖研究』, 1985년 10월호. PP 8~9.

정이었으나 북한측의 항공기 이용, 회담연기 요구에 의해 12월 3일 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개최횟수는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과는 실로 획기적인 것이라 평가되어야 될 것이다.²⁴⁾ 즉 85년 9월 20일 부터 23일까지의 3박 4일간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同時交換訪問의 실현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교환방문을 통해 서울과 평양에서는 분단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총 100명의 방문단 중 65명이 92명의 가족·친척들과 극적으로 상봉, 재회의 감격을 나누었다. 한편 藝術公演團도 9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서울에 예술단은 평양대극장에서, 그리고 평양예술단은 국립극장에서 각기 2회의 공연을 가졌다. 人的交流가 곧 정보교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적십자회담은 남북한간의 정보교류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년 내에 서울·平壤을 往來한 총 인원은 12월에 제 10차 본회담까지 포함하여서 모두 5백 60여명에 이르고 있다. 즉 그것은 쌍방대표단의 수적 규모에 있어서 지난 70년대의 59명에서 기차 25명이 더 추가된 84명으로 증가되었으며,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각 1백 51명 등에서 비롯된다.²⁵⁾ 그러나 서울·평양간의 이와같은 많은 人的往來에도 불구하고 적십자회담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실적도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남북적십자회담은 1천만에 달하는 이산가족의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 기본 사명을 해결하는 내용은 남북한이 서로 합의한 생사, 주소확인, 방문 및 상봉, 서신거래, 가족 재결합, 기타 人道문제 등으로 5개항의 의제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제 8차, 9차, 10차회담에서 북한측의 주장의 요점을 간추려 보면 이미

24) 金學俊교수는 비록 부분적이거나 실현된 人的交流와 文化交流는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인다면 남북한 관계는 경제협력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것이고 정치적·군사적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주최 「現代社會와 國家」 세미나 발표논문 (1985.12.2~3) PP 81~82.

이러한 견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신중론과 적극론)에 관한 논의는 李洪九·安秉永. op. cit. PP 89~90.

25) 河碩俊, “南北對話經過”, 「統一問題」第 21 輯, 1985. 10. PP 14~20.

南北對話 再開의 背景과 現況

합의된 5개항의 의제들은 모두 백지화하고 그 대신 ‘自由往來’라는 의제를 새로 설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북한측은 내년 9월까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산가족문제를 풀어나가자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측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왜 내년 9월까지 미루자고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른바 ‘自由往來’라는 것은 이미 북한측이 71년에 시작된 예비회담 때부터 내놓은 것으로 그 이면에는 자유왕래를 구실삼아 곧 정치적 선행조건을 주장하려는 저의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실상 自由往來로 말한다면 그것은 여행의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는 북한측 보다는 우리측에서 더 바라는 바다. 다만 우리측이 그동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적십자사업에 정치문제를 개입시킴으로써 이산가족 찾기 사업에 부질없는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우리측은 이번 제 8 차, 9 차회담에서 ‘정치적 선행조건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자유왕래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의제 5개항도 段階性과 順次性을 일괄적으로 토의 해결하는 종합적인 합의서안을 내놓았다. 이 합의서안은 제 9 차 평양회담에서 본격적으로 토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 9 차회담은 모란봉경기장사건으로 회담초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지난 12월 3일 부터 있었던 서울회담에서도 북한은 이에대한 응당한 代案을 내놓지 않아 다시 그것은 86년 2월 26일 11 차회담으로 연기하는데 합의하고 끝나고 말았다.²⁶⁾

2. 南北 經濟會談

경제회담은 지난 84년 11월 15일 1차회담이 실시된 뒤에 곧 이어서 2차회담과 더불어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北韓이 韓美 「팀·스피리트」 훈련을 트집잡아 일방적으로 연기해 오다가 금년 5월 2차회담, 6월 3차회담, 9월 4차회담으로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11월 20일에 제 5차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됨으로써 약 1년 동안에 5차례의 회의가 진전되어 왔다.

경제회담에서 다루는 테마는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의 두가지 분야이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제 1차회담에서 남북쌍방은 이 두가지 분야에 대해 각각

26) 「조선일보」, 85.12.6.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내놓았다.

〈표 2〉 제 1 차회담에서의 쌍방제의 내용

구 분	남 한	북 한
물자교역부문	① 수입품목 : 무연탄, 철광석, 銑鐵, 鉛塊, 고철, 명태, 옥수수 등 ② 판매품목 : 철강제품, 銅제품, 경운기, 승용차, 시계, TV수상기와 음향기기 등 전기전자제품, 석유류, 의약품 등	① 수입품목 : 철강제품, 重石鐵, 납사, 석유류, 소금, 감귤 등 ② 판매품목 : 철광석, 석탄, 마그네샤크림카, 공작기계, 채취설비, 명태, 쌀, 옥수수 등
경제협력분야	○ 지난 82년 2월 1일 '20 개시범실천사업' 제의로 '남북간의 자연자원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남북 어민들을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이미 제시한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자본협력과 기술협력, 그리고 활발한 人的交流등의 필요성 강조	○ '經濟合作'에 보다 역점을 두고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공동어로구역설정과 水産合營 회사설립 등 漁業合作, 그리고 서해안 간척지 개발 및 관개강연결 같은 農業合作 등을 강조

위의 표에서 쌍방의 제안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그 어느때 보다도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로의 교역품목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²⁷⁾ 또 한가지 공통점은 物資交易을

27) 金達述, “南北對話의 發展展望과 그 限界性”, 北韓研究所가 마련한 85년도 下半年 研究會員 分科會議에서 발표한 主題論文. PP 2~3.

南北對話再開의 背景과 現況

위한 輸送手段으로 京義線 철도연결과 南浦와 元山, 그리고 仁川과 浦項 등 항구들을 개방하는 데도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 分斷 40年만에 처음으로 南北經濟會談이 개최되었고 또 그 첫회담에서 이처럼 많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으며 會談의 장래에도 매우 밝은 전망을 갖게 하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²⁸⁾

그러나 북한측은 제 2 차회담에서 부터 갑자기 태도를 돌변시켰다. 북한측은 우리측의 제 1 차회담에서의 공통된 물자교역 등을 당장 실시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갑자기 회담형태를 바꾸어 次官級을 수석대표로 하는 현재의 남북경제회담 대신 ‘副總理級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제의한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은 제 3 차회담과 제 4 차회담에서 까지 계속 반복 주장되어 왔을 뿐, 실질적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으며, 그저 모든 것은 ‘副總理級회담이 개최되면 곧 해결된다’고 일축해 왔다.²⁹⁾ 다만 북한측은 제 1 차회담에서 그들 자신이 내놓은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방안이 있었던 만큼 ‘쌍방제안의 공통점을 찾아 종합적인 합의서로 만들자’고 하는 우리측 주장에 부득이 동의해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11월 20일의 제 5 차회담에서 논의될 것이었으나 회담이 진전없이 끝나므로써 다시 그것은 86년 1월 20일로 정해진 회담에서 더 논의될 것으로 남기고 있다.

3. 南北國會豫備接觸

작년 말 관문점에서 있었던 소련인 망명사건과 85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구실삼아 남북대화를 무기 연기시켜 오던 북한측은 금년 4월 9일 갑자기 最高人民會議 명의로 ‘남북정부당국간의 不可侵宣言 채택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다. 북한측이 보낸 편지에 의하면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하게 된 그들의 이유는 ‘3 차회담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긴장완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민족끼리 마주 앉아 가능한 문제를 풀어보자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28) 박준영, “남북한 경제회담의 정치적 의의”, 『현대사회』 18호 (1985. 여름호). PP 117~130 참조.

29) 徐南源, “경제회담과 ‘副總理級 상설기구’ 제의”, 『北韓』, 85년 12월호. PP 60~63.

이데올로기 研究論叢

한편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6월 1일,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不可侵協定체결을 정식으로 제의하고 있으므로 굳이 국회에서 이를 다시 촉구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측 정부당국이 이에 호응해 오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만약 북한측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統一憲法 제정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면 남북간의 국회회담을 개최해도 좋다”는 뜻을 전달했다.

남북국회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판문점 예비접촉은 이렇게해서 7월 23일과 9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러나 국회회담에서 다룰 의제문제를 두고 당초부터 쌍방의견이 이처럼 엇갈려 있었던 만큼 예비접촉이 쉽게 타결될리는 없었다. 그리하여 두차례의 예비접촉에도 불구하고 회담의 형식, 대표단구성, 본회담장소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들에만 합의를 이루었을 뿐, 이상과 같은 본질적인 견해차이로 말미암아 본회담의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로는 다음 접촉일자 조차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9월 25일에 있었던 제 2차접촉에서의 쌍방의 제의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³⁰⁾

<표 3> 쌍방제의 내용 비교

區 分	南	北	備 考
會 談 議 題	① 統一憲法을 기초하기 위한 民族統一協議會議 機構를 구성하는 문제와 ② 이에 따른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不可侵에 대한 共同宣言을 발표할 데 대하여 ○ 統一憲法 제정문제를 토의할데 대하여	北韓側은 나중에 “남과 북사이에 긴장을 완화하며, 조국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로 수정제의 하였음
首席代表級	雙方 國會議長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장급 이상의 國會議員	議長 또는 副議長	
第 一 次 本會談場所	서 울	平壤	

30) 河碩俊, op.cit., P.25.

南北對話再開의 背景과 現況

북한측이 제의하고 있는 ‘不可侵宣言’은 그 내용에 있어서 원래 우리측이 제의한 바 있는 ‘不可侵協定’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³¹⁾ 즉 우리측의 不可侵協定은 이미 지난 74년에 정식 제의된 것처럼 무력불사용, 내정불간섭 휴전협정 효력준수 등 매우 엄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다가 不可侵協定의 실제적 이행을 보장하는 구체적 조치, 예를들면 有關國會議를 통한 구체적 보장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북한측의 이른바 ‘不可侵宣言’은 ‘宣言’이란 단어에서 보는 것 처럼 그저 ‘南侵하지 않겠다’ 또는 ‘北侵하지 않겠다’는 등의 소위 ‘宣言’적인 의미만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우리측은 國會會談에서 不可侵宣言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宣言的 의미 밖에 없으므로 실천력을 가진 정부당국에서 직접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不可侵問題를 議題로 하자는 북측주장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하였다.³²⁾

이에 북한측은 더 이상 不可侵問題를 의제로 거론할 수 없게 되자, 議題를 “남과 북 사이에 긴장을 완화하며 조국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로 修正·提議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의 修正提議는 너무나도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無議題나 다름없는 것이다.

4. 南北 體育會談

남북한 체육회담은 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세차례나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이 정치문제를 체육회담에 까지 거론시킴으로써 아무런 진전없이 끝나 버렸다. 최근 85년 10월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친 南北「로잔느」 체육회담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재 하므로써 스위스 「로잔느」의 IOC 본부에서 南北韓代表 각각 6명, IOC 代表 6명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會談에서 北韓은 서울올림픽의 명칭을 「조선평양서울올림픽대회」로 할 것과 모든 경기는 서울과 평양에서 50 대 50으로 분산개최하고, 개·폐회식은 서울과 평양에서 중복별

31) 閔丙天, “國會會談과 ‘不可侵共同宣言’ 제의”, 「北韓」, 1985년 12월호, PP 65~66.

32) Ibid.

로 나누어서 거행하고, TV중계로도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등 9개항의 터무니 없는 안을 제시하였다.³³⁾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이 먼저 IOC헌장과 올림픽정신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서울올림픽에 북한체육인 및 문화인의 자유참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우리측은 축구, 배구, 핸드볼 등 3~4개 종목의 예선경기를 北韓에서 치르도록 할애해 주겠다는 아량도 베풀었다. 그러나 北韓은 이 모든 제안을 일축하고 자기들이 제시한 9개항에 대해 우리측과 IOC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억지를 부려 會談은 내년 1월 8일 재개하기로 합의만 본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³⁴⁾

V. 南北對話의 評價와 展望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남북한간에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그 성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에 있다고 보겠다. 그것은 회담진행과정에서 표출된 남북한간에 있어서의 기본인식이나 태도 및 가치에 있어서의 커다란 차이에 기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쌍방이 추구하는 목표나 이익에 있어서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남북대화는 분명히 7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전망에 있어서도 다소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우선 그 첫째는 재개된 南北對話에서 보이고 있는 北韓側의 태도가 지난 70년대와는 달리 훨씬 합리적이고 柔軟性을 띠고 있다는 데 있다. 北韓은 70년대만 해도 南北간의 經濟交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

33) 「조선일보」 85년 10월 10일.

34) 北韓측이 우리측과 IOC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신하면서도 국제상식에 배리되는 극장을 내놓을 의도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88올림픽 개최는 저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80년 모스크바올림픽 또는 작년 로스앤젤리스 올림픽처럼 '절반대회'가 되도록 하여 '체면손실의 최소화'는 기하자는 것이다. 康仁德,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올림픽", 「共産圈研究」, 1985. 11, PP10~11.

南北對話 再開의 背景과 現況

있으며 經濟會談을 개최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일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작년 가을, 수해물자인수인도를 계기로 南北간의 경제회담 개최에 동의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회담 제1차회담에서 보면 북한측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합리적이었다.

赤十字會議에 있어서도 故鄉訪問團을 상호교환하는 데 동의한 것은 진일보한 柔軟性을 보여준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藝術公演團의 상호방문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들의 소위 “동요계층”이나 “적대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산가족, 즉 월남피난민 가족들의 서울·平壤 상호방문을 수락했다는 것은 큰 결단을 내린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³⁵⁾ 또한 지난 제8차회담에서 議題에도 없었던 ‘自由往來’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우리의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면이 있으나, 적어도 그들은 70년대 처럼 反共法·國家保安法철폐, 反共團體해산, 反共政策中止와 같은 이른바 ‘先行條件’을 정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특히 적십자회담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沈鍊性和 柔軟性은 會談外的 事項에서 지적될 수 있다. 즉 71년 당시만 해도 北韓側代表團人員들의 모습은 일률적으로 짧은 머리에 획일적인 양복으로 모두가 시골티나는 차림새들이었다.³⁶⁾ 그들의 言動도 역시 ‘赤十字代表라기 보다는 統一의 使節로서 이곳 서울에 왔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統一의 使節인양 자처하는 ‘목에 힘주는’ 格의 딱딱한 樣態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에 온 북한측의 赤十字代表들이나 수행원 또는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인원들은 그 外樣이나 言動들이 비교적 다양하고 세련되어 서울 市民들과 함께 섞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차이를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角度는 좀 다르지만 北韓은 88년 서울올림픽개최문제에 대해서도 ‘絕對反對’라는 종전의 태도를 포기하고 ‘共同主權’라는 새로운 주장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북한은 1981년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제84차 IOC總會에서 제24차 올림픽 개최장소로 서울이 결정되자 그후 맹렬한 反對運動을 전개해 왔었다. 그러나 中共·소련을 비롯한 공산제국들조차 인정하고 있는 서울올림픽의 固定化에 대해 더 이상 그들은 絕對反對의 고수에는 힘의 不足을 절

35) 金達達, op. cit. P. 4.

36) Ibid.

감하고 있는 것이다.³⁷⁾

남북대화의 전망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은 北韓의 對內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실로 경제의 침체에 허덕이고 있으며 남한에 대한 비교 열세에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金正日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이 中共을 방문하고 經濟特區를 참관하였으며 中共의 現代化政策에 禮讚을 보내는 등, 북한내에서는 ‘80年代 速度創造運動’과 같은 南韓의 經濟發展에 대항하기 위한 經濟建設을 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남북대화에 응해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그러나 이상의 남북대화에 있어서 그 긍정적인 면들을 전제하면서도 결국 80년대의 남북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소득없이 회담만 계속될 것인가하는 것은 北韓이 앞으로도 계속 ‘南朝鮮革命’ 路線을 固守할 것인가 아니면 拋棄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³⁸⁾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볼때 아직 그들은 南韓共産化의 幼想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적어도 金日成 生存時에는 이런 幼想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진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의 南北對話의 진전에는 결정적인 制限性이 주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⁹⁾

우선 그것은 여러회담과 그 場外에서의 展開樣態를 종합해 볼 때 북한측은 국회회담에 最大力點을 두고 그 與件造成 범위내에서 여타의 회담을 운용함과 동시에 이들 모두를 주한미군철수와 한미안보유대 약화를 위한 三者會談開催 분위기를 촉진에 귀착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들의 국회회담개최 이유를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3자회담이 마련되기 전에 필요한 것’이라 하면서 ‘남한측이 국회회담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다른 회담, 즉 경제회담이나 적십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7) Ibid.

38) 금년에 진행된 남북대화에 대한 외국언론의 평가는 「Newsweek」, 1985년 12월 16일자. “Better than Nothing - The Korea talk but solve no problems” 참조.

39) Dae - Sook Suh, “Domestic Sources for North Korean Unification Policy,” prepared for the 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October 24-17, 1985. Chicago. P.21.

南北對話 再開의 背景과 現況

두번째로 南北對話의 긍정적 전망을 어렵게 하는 점은 북한이 和・戰併行의 전략의 일환으로써 남북대화에 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0년대의 對話당시에도 북한은 회담석상에서는 좋은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은밀히 남침용 땅굴을 파 내려왔던 역사에 대해 우리는 재삼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현재 남북대화를 지속하면서도 ‘남조선혁명’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증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이로인해 북한주민의 생활상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800불 수준이나, 제9차 적십자회담 그리고 고향방문단과 예술단 교환방문으로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의하면 북한의 생활수준, 소비수준은 평균 개인소득 수준이 약 4백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번것을 안먹고 안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신 지난 몇십년 동안 군비를 갖추는 데 투입하여 경제총량 규모가 우리의 절반도 안되는 북한이 우리 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軍事統一의 집념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⁰⁾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는 우리에게 통일문제와 안보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와 관련하여 추진해 나갈 통일안보정책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이룩하는 일이다. 둘째로 북한의 和戰併行戰略에 대한 대비책(정치적 민주질서 정착·경제적 복지·사회적 화합·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일이다. 셋째로 현재의 남북대화를 한반도의 平和와 統一을 위해 이바지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인내와 포용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다.

40) 李相禹, “북한의 낮은 消費水準의 의미”, 『北韓』, 1985년 12월호.
PP 72~75.